

주전 올인 vs 광폭 기용... 여자농구 '퀸' 격돌

(BNK)

(우리은행)

챔프전 체력 싸움 관전포인트
16일부터 5전3선승제 '휘슬'

BNK 베스트5가 91% 득점
평균 출전시간 최소 32분 달해

우리은행 "쉬면서 싸운다"
김단비만 평균 38분 무쇠 투혼



11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하나은행 2024-2025 여자프로농구 플레이오프 5차전 부산 BNK 썬과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의 경기. BNK 김소니아(왼쪽 세 번째)와 박성진이 동료들에게 수비 강화를 알리고 있다.

여자프로농구 부산
BNK가 지난 11일 용인 삼성생명 4강 플레이오프 최종 5차전에서 올린 70점 가운데 68점이 주전 5명의 손에서 나왔다.



에이스 김소니아가 20점, 이소희가 15점, 이지마 사키가 12점, 박혜진이 11점, 안혜지가 10점을 기록했다.

박성진이 3쿼터 종료 2분여 전 골밑슛을 성공한 게 벤치 득점의 전부였다.

1차전도 양상은 비슷했다. 66점 중 벤치 자원의 득점은 심수현의 2점뿐이었다.

BNK가 플레이오프 5경기에서 올린 292점 중 주전 5명 득점은 266점, 벤치 득점은 26점이다.

비율로 보면 득점의 91%가 주전 5명의 몫이다. 득점에서 벤치 의존도는 9%에 그친다. 출전 시간을 봐도 BNK의 주전 의존도가 잘 드러난다.

이소희가 1초도 쉬지 않고 40분을 모두 출전한 가운데 안혜지도 38분가량 뛰었다.

정규리그 막판에야 부상을 털어내고 복귀한 이소희는 삼성생명과 5차례 맞대결에서 평균 37분가량 뛰었다.

안혜지의 평균 출전 시간도 36분을 넘는다. 이지마와 박혜진도 평균 34분가량 코트에서 뒀다.

주전 5명 중 김소니아의 평균 출전 시간

(약 32분)이 가장 적다. 박정은 감독은 시작부터 이 같은 '총력전'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3일 삼성생명과 1차전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박 감독은 "단기전에서는 체력 안배보다는 승기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 경기 흐름을 잡는 데 더 신경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혜지-이소희-이지마-박혜진-김소니아로 이어지는 주전 라인업이 확실한 만큼 박 감독이 전적으로 이들의 기량에 승부를 거는 운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이 주전 의존도를 극도로 높인 끝에 BNK는 삼성생명을 3승2패로 어렵게 누르고 챔프전에 올랐다.

덕분에 선수들도 모처럼 쉰다. 박 감독은 "박혜진이 '내일은 쉴 겁니다'라고 했다. 이런 말을 하는 선수가 아닌데, 다들 지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BNK의 마지막 상대 아산 우리은행의 위성우 감독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선수 기용을 보여주고 있다.

청주 KB와 플레이오프 5경기에서 평균 38분가량을 소화한 대들보 김단비를 빼면 출전 시간 분포가 고르다.

이명관(약 31분), 스나키와 나츠키(약 30분), 박혜미(약 22분), 이민지(약 18분), 심성영(약 17분), 김예진(약 16분) 등이 고루 출전했다.

10일 KB와 5차전 승리 후 위성우 감독은 이날 14점을 올리며 '깜짝 활약'을 보여준 박혜미를 두고 "원래 5분도 안 뛰던 선수인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경기에서 32분을 뛰었다. 한몫이 다 차지에 들어와서 정말 잘해줬다"고 칭찬했다.

위 감독은 "지도자로서 이기는 것보다 박혜미, 심성영 등 다른 선수들도 잘해서 더 기쁘다"며 "이런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자기 자리를 찾는 게 승리보다 쾌락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양 팀 사정을 보면 올 시즌 여자프로농구 대장정의 종막인 챔프전에서는 '체력 싸움'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수 기용 방식이 확연히 구분되는 두 지도자의 맞대결은 16일부터 시작한다.

16일 오후 2시 25분 정규리그 우승팀 우리은행의 홈인 아산인순체육관에서 챔프전 1차전이 열린다. 스카이텔레비전·연합뉴스



야마모토·사사키 도쿄시리즈 선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다음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정규리그 개막 시리즈에 나설 선발투수 2명을 확정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1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케멀백랜치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시범 경기를 마친 뒤 "도쿄 시리즈 2차전에 사사키 로키를 선발 투수로 내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저스와 사사키의 컵스는 18-19일 도쿄 돐에서 개막 2연전을 치른다.

앞서 로버츠 감독은 스프링캠프 초반 도쿄 시리즈 1차전 선발투수로 야마모토 요시노부를 발표했으나 사사키에 대해선 확인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준승 국제야마후어 자격으로 다저스와 계약한 사사키는 스프링캠프 초반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사사키는 5일 신시내티 레즈와 시범경기에 처음 등판해 최고시속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며 3이닝 동안 삼진 5개를 뽑고 2안타 무실점으로 막는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사키가 이날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두 번째 경기에서도 4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자 로버츠 감독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개막전 출전 불발... 마이너서 시즌 시작하는 김혜성

시범 경기 부진... 트리플A 팀 오클라호마시티 코메트로 강등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김혜성(26살)의 도쿄행이 결국 불발됐다.



김혜성은 다저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 팀인 오클라호마시티 코메츠에서 미국프로야구 첫 시즌을 시작한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다저스

구단은 12일(한국시간) 김혜성의 이름이 포함된 7명의 마이너리그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구단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외야수 김혜성에게 구단이 마이너리그 옵션을 발동했다"고 전했다.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이날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케말백 랜치에서 열린 2025 MLB 클

리블랜드 가디언스와 시범 경기를 마친 뒤 "김혜성이 (개막전이 열리는) 일본 도쿄에 동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혜성은 올 시즌 정규리그를 오클라호마시티에서 시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혜성은 클리블랜드전에 교체 출전해 2타수 무안타 1삼진으로 부진했고, 결국 마이너리그행을 통보받았다.

그는 MLB 시범 경기에서 타율 0.207(29

타수 6안타), 1홈런, 3타점, OPS(장타율+출루율) 0.613을 기록했다.

김혜성은 지난 1월 다저스와 3+2년 최대 2200만 달러(약 320억 원), 보장계약 3년 총액 1250만 달러(182억 원)에 다저스와 MLB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넣지 않았다.

김혜성은 마이너리그에서 뛰더라도 옵션에 따라 2025시즌 연봉 350만 달러(51억 원)를 보전받는다.



개막전 출전 불발... 마이너서 시즌 시작하는 김혜성

in 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